韓國心理學會誌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1982, Vol. 3, No. 3, 159-171

學生들의 道德判斷에 關한 一研究*

朴 鍾 榮　　李 鍾 鉉
韓國外國語大學　　空軍士官學校

본 연구는 Rest(1979 a)의 道德判斷에 관한 主題定義檢査(Defining Issues Test: DIT)를 활용하여 地域, 學年水準 및 性別 變因에 따라 학생들의 道德發達段階를 분석하고, 韓·美 학생집단의 도덕발달경향을 비교·검토하였다. 연구에 동원된 피험자는 모두 480명으로서, 서울지역과 江原地域의 初·中·高·大學校別로 남녀학생 각 30명씩이었으며, 비교를 위한 미국의 자료는 Rest(1976)의 연구결과를 인용하였다. 原理的 道德性에 주요 指數인 P점수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지되고 있는 地域 및 학년수준에 따르는 差異는 假說에 부합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나, 假說과 상반되는 여학생 優勢의 性別差異가 확인되었다. 비교적으로 信賴度가 낮은 제2,3 및 4단계의 指數들은 일관성있는 지역간, 학년수준간 및 남녀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국과 미국의 비교집단들은 P점수와 例外的 選好段階率의 次元에서 상당한 차이점을 나타냈다. 본 연구결과는 넓은 의미에 있어서의 Kohlberg발달단계를 반영하고 있으며, 한국 학생들의 도시·시골간과 韓·美 비교집단간의 差異는 각각 文化·社會的 영향의 소산이라고 해석하였다. DIT 指數上의 性別差異에 관한 앞으로의 연구는 제반요인들을 참작하여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ysenck(1976)는 철학과의 連累關係를 피하여 道德性을 사회적 조건형성이라는 견지에서 해석하고 있다. Berkowitz(1964) 역시 이와 비슷한 관점에서 도덕가치란 사회성원들이 옳다고 믿는 행위에 대한 평가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기대에 대하여 단순히 부응하는 것이 높은 도덕적 경지를 뜻하지 않는다는 것은 Aronfreed(1976)나 Mischel와 Mischel(1976)의 주장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들은 社會學習理論과 認知·道德을 통합하여 다루려고 한다. Aronfreed(1976)는 비평가적 次元이라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내면적 통제"와 도덕적 결심에 관련된 통제를 구별하여 보고 있다. 그는 외적 規範에 同調하느냐, 또는 안하느냐에 따라 어떤 행위를 도덕적인 것이라고 간주하려는 행동주의적 모형에 대한 하나의 보완책으로서 Piaget와 Kohlberg의 도덕발달에 관한 연구방법을 받아들이고 있다. Mischel 등(1976)은 광범위한 도덕적 행동과 비도덕적 행동의 형성가능성에 대하여 논의하는 가운데, 이는 수동적이고 상투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능동적이고 개인적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行動들이 사회적 要因과 인지적 요인간의 상호작용의 산물이라고 보는 사회학습이론에 머무는 한 道德性의 의미는 불확실해진다. 따라서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도덕성이란 무엇인가"라는 道德構造에 관한 질문이 될 것이다.

도덕발달에 관한 연구 가운데 처음으로 철학적 입장에서 도덕을 定義하여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 이는 Kohlberg(1971)일 것이다. 그는 철학자들이 분석한 도덕범주에 관하여 고찰하는 과정에서, 도덕성의 기본골격은 正義原理(principle of justice)이며, 이 정의의 핵심은 평등성과 상호성에 의하여 규제되는 권리와 의무의 한계를 분명히 하는 데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Kohlberg(1971)에 따르면, 법률적 요청과 社會契約은 정의원리에서 연역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존엄으로서의 정의원리는 법에 우선한다는

* 이 研究는 1981年度 產學協同財團의 研究費 지원으로 이루어진 것임.

것이다. 따라서 그는 도덕발달의 최종 목표인 정의의 뜻을 밝히고, 권리, 의무, 복지, 자유, 법률, 사회질서 등과 같은 도덕개념들을 토대로 正義의 최상 형식을 지향한 발달과정을 분석하기 위하여 도덕철학을 끌어들였던 것이다. Kohlberg(1971)에 의하면, 이와 같은 발달제일이 경험적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도덕성에 관한 哲學的 定義는 적어도 부분적인 妥當性을 띠게 된다는 것이다. 道德推理는 분명히 하나의 추리이므로 논리적 추리와 도덕적 추리는 상호병행한다는 것이다(Kohlberg, 1976). 즉, 어떤 사람의 認知發達段階가 具體的 操作期에 머물러 있다면, 그는 前因習的 道德水準(preconventional moral level)에 있으며, 낮은 形式的 操作期에 머물러 있다면 因習的 道德水準(conventional moral level)에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에 의하면, 論理의 發達은 도덕발달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도덕수준이 인지수준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는 있지만, 도덕발달단계의 분류작업은 오로지 도덕추리 變因에만 근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Kohlberg, 1976).

Kohlberg의 세 가지 도덕수준은 前因習的 水準(제Ⅰ수준)이 제 1 단계와 제 2 단계로, 인습적 수준(제Ⅱ수준)이 제 3 단계와 제 4 단계로, 나아가 後因習的 水準(postconventional moral level: 제Ⅲ수준)이 제 5 단계와 제 6 단계로 세분된다. 제 1 수준에는 대부분의 9세 이하의 兒童과 약간의 청년 및 成人들, 그리고 성인 범죄자들이 포함된다. 제Ⅱ수준에는 대부분의 청년들과 성인들이 속하며, 소수의 성인들만이 제Ⅲ수준에 달하게 되는데 그것도 20세 이후에나 가능하다.

제Ⅰ수준의 제 1 단계는 他律的 도덕성으로서 구체적인 개인의 견해에 따라 행동하지만, 제 2 단계는 개인주의적, 상호교환적 도덕성으로서 서로 다른 견해를 지니고 있는 他人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제Ⅱ수준의 제 3 단계는 對人相互間의 기대와 관계에 따르는 도덕성으로서 共有關係 또는 共有集團에의 참여자의식을 지니고 있으며, 한편 제 4 단계는 社會體制와 양심에 의한 도덕성으로서 사회성원의식에 따르는 체제지향적 견지를 취한다. 끝으로 제Ⅲ수준의 제 5 단계는 사회계약과 개인의 권리에 바탕을 둔 도덕성으로서 도덕적 견해와 법률적 견해를 구별하기는 하지만 계약에 의한 법적 권리를 떠나서 도덕적 견지를 취하지는 못하며, 제 6 단계는 보편적인 윤리적 원리에 준하는 도덕성으로서 정의원리에 입각한 보편적 倫理觀에 따라 행동한다.

Kohlberg의 道德判斷에 관한 자료수집방법은 비교적 개방적인 것으로서 假想的 이야기들에 대한 피험자들의 복잡한 思考反應에 근거하고 있다. Kohlberg, Colby, Gibbs 및 Speicher-Dubin (1978)의 채점법에 의하면, 피험자의 응답내용은 먼저 主題에 따라 분류되고, 각 주제는 있을 수 있는 12가지의 規範(norms)으로 나뉘며, 나아가 각 규준은 있을 수 있는 17가지의 要素(elements)로 再分된 뒤, 마지막으로 도덕판단단계로 채점된다. 즉, 이와 같은 네 가지의 분류과정(주제—규범—요소—단계)을 거침으로써 道德判斷構造에서 내용을 분류·추출해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험자들의 응답이 어느 한 類目으로 쉽사리 분류될만큼 결정적이거나 완전하지 못한 경우가 흔히 있게 되며, 그와 같은 경우 評定者간의 신뢰도가 떨어지기 쉬운 것이다.

그러나 Kohlberg는 1978년도에 要綱을 改正하면서 각 단계마다 A 및 B의 下位段階를 설정하고 2~5단계를 약간 조정하였으며, 아울러 正義에 입각한 道德哲學이라는 제 6 단계의 엄격한 基準에 부합하는 應答內容을 실제로 피험자에게서 기대할 수 없다는 견지에서 제 6 단계를 彩點類目에서 아예 제거하였다.

한편 Kohlberg의 개방적 자료수집방법은 도덕판단에 관한 여러 가지 새로운 특성들을 밝혀준다는 데에 그 장점이 있다. Kohlberg의 이야기에 대한 반응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는 발달의 尺度가 되는 제반 思考類型을 밝힐 수 있다. 특히 Piaget(1965)의 방법에 따른다면 발달의 上限연령이 12~13세에 끝이지만, Kohlberg의 방법은 복잡성을 띠는 대신에 발달의 상한연령을 크게 늘려 잡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도덕발달에 관한 Piaget나 Kohlberg 방법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Rest,

Cooper, Coder, Masanz 및 Anderson(1974)은 主題定義檢査(Defining Issues Test: DIT)를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이 검사의 최신형(Rest, 1979, a)은 Kohlberg類의 도덕문제상황과 더불어 관련되는 여러 가지 主題問項들을 제시하고서 피험자들이 중요한 주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Rest(1979a)는 제 6 단계에 대한 Kohlberg식의 엄격한 基準을 완화하여 道德的 義務에 관한 철학이 담긴 피험자의 應答 內容이라면 제 6 단계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見地에서 DIT問項에 이를 포함시켜 다루고 있으며, Kohlberg와 같이 단계들을 再分하지도 않았는데(제 5 단계는 제외), 그렇게 하더라도 실제의 연구결과에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Rest(1979a)의 DIT는 6가지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험자는 각 이야기마다 12개씩 주어진 도덕판단주제들을 중요도에 따라 評定한 뒤 그중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主題 4가지를 차례로 선택하여야 한다. 각각의 주제는 도덕판단단계를 가리키기 때문에 우리는 피험자가 택하는 가장 중요한 主題를 그의 도덕발달단계로 받아들일 수 있다.

DIT는 표준문항과 표준검사조건, 그리고 Kohlberg類의 自由反應樣式 대신에 等位評定法을 쓰고 있기 때문에 피험자들의 도덕판단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표준검사를 활용할 경우, 도덕발달의 構造를 잘못 파악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Rest(1976)에 의하면, 그와 같은 문제점은 다음의 두 가지 평가법을 분석하여 봄으로써 그 해답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즉, Kohlberg식으로 피험자의 도덕적 思考內容을 수집하여 표준채점법에 따라 평가하는 방법이 있고, 피험자에게 표준주제문항을 제시하고 評定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앞의 경우는 評定者가 피험자의 思考內容을 주어진 유목으로 분류하는 방법이고, 뒤의 경우는 피험자로 하여금 자신의 판단과 가장 가까운 유목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물론 연구의 초기단계에서는 앞의 방법을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도덕판단유목을 정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결과적으로 그와 같은 面接法에 의한 자료수집과 이의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DIT 問項들이 구성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Rest, 1976). 일반적으로 객관식 검사문항은 자유반응양식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反應型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반복적 반응형이 밝혀지고 이에 대한 채점방법이 마련된 뒤에는 자유반응법의 장점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Rest 등(1974)은 DIT연구에서 단일반응형, 즉 原理的 道德性(principled morality)만을 참작하여 發達指數를 유도해내는 것이 유용하다는 것을 밝혔다. DIT에서 피험자는 12개의 도덕판단문항 중에서 중요한 것 4가지를 골라 等位를 매겨야 한다. 12개의 問項 중 몇 가지는 Kohlberg의 제 5 단계와 제 6 단계를 나타내는 원리적 도덕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을 토대로 6가지 도덕문제상황에 대한 피험자의 원리적 도덕판단점수(이를 P점수라 함)를 환산해 낼 수 있다(Rest, 1979a). (물론 이와 같은 점수는 다른 도덕판단단계들에서도 구할 수 있다). P점수는 점진적으로 획득되고 悉無確率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므로 연속변인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Rest(1976)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학생들의 P점수는 학년수준에 따라 일관성있게 증가하며, 반대로 제 2 단계에서 제 4 단계까지의 점수들은 감소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Rest(1976)는 중학생에서 대학원생까지 각 40명(총 160명)의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도덕발달단계를 분류하기 위하여 例外的 選好段階의 결정방법을 고안하여 제시하고 있다. 즉, 전체표집의 평균치와 표준편차를 토대로 각 피험자의 標準點數를 산출하였다. 따라서 각 피험자는 6가지의 단계별 표준점수를 갖게되며, 그중에서 가장 높은 표준점수(+1.00 이상)가 나온 단계를 그 피험자의 예외적 선호단계로 간주하였다. 모든 단계에 걸쳐 표준점수가 +1.00을 넘는 것이 없을 경우에는 이를 混合型(mixed type)으로 간주하였다. 이와 같은 절차에 따라 구한 학년별, 단계별 선호형에 대한 百分率들은 예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즉, 피험자의 약 75%가 예외적 선호단계로 분류되었으며, 학년수준에 따라 일관성있는 발달경향이 나타났다.

즉, 그의 자료에 의하면 학년수준에 따라 P점수의 증가현상이 일관성있게 나타나고 있으며, **變量分析結果** 역시 높은 의의도수준의 집단간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비슷한 경향은 동등한 연령집단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Rest 등(1974)의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났다.

Rest(1979b)에 의하면, 우리는 연구에서 연령이나 교육수준 이외의 다른 **變因**들의 영향에 대해서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동일한 연령수준의 표집 안에서도 P점수들이 상당한 **變異現象**을 나타내는 경우를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집단내 變量의 약간은 교육수준에 의하여 설명되겠지만, 그 이외의 다른 요인들이 작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Rest(1979b)에 의하면 美國에서 낮은 경향의 P점수를 보이는 표집은 보수성이 강한 남부지방의 피험자들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 남부의 Georgia주와 Virginia주 대학생 표집의 평균 P점수는 각각 24.5와 34.0으로서, 북부지방의 대학생들보다 훨씬 낮은 득점경향을 보였다. Husted(1978)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외국태생의 소아과 수련의들(주로 인도태생이 많았음)의 평균 P점수는 32.3(n=58, SD=13.0)인데 반하여, 미국태생 수련의들의 그것은 57.2(n=46, SD=14.0)이었다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결과는 Ismail(1976)의 연구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사우디 아라비아胎生 대학생들의 평균 P점수는 28.3(n=40, SD=9.4)이었으며, 한편 미국태생 대학생들의 그것은 42.6(n=40, SD=14.5)이었다.

이와 같은 성장환경의 영향에 관하여 완전하고도 결정적인 해석을 내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사회학습이론의 견지에서는 他人들이 보여주는 도덕판단행위를 모방한다고 설명할 것이다. 즉, 보수적 환경에서 성장한 사람들과 진보적 환경에서 성장한 사람들간의 차이는 단지 서로 다른 모델링效果와 報償경험의 반영에 불과하리라는 것이다. 한편 그와 같은 差異는 부유한 환경과 빈곤한 환경의 영향에 기인한다고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上述한 효과들이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否認할 수 없겠지만, 개인이 신봉하게 되는 觀念形態는 주어지는 상황과 사회적 압력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Rest, 1979b). 그와 같은 예는 사회적 압력 때문에 결국은 철회하고야 마는 Galileo의 地動說의 경우를 들 수 있을 것이다.

Holstein(1976)은 Kohlberg의 도덕판단 평가법이 性에 대한 偏見을 내포하고 있다는 비판과 더불어 性別變因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Rest(1979b)는 도덕판단에 있어서의 성별차이에 관한 22개의 연구결과를 검토한 결과, 남녀간의 의의있는 P점수 차이는 단지 2개의 연구결과에서만 나타나고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연구에서도 겨우 6%의 變量만이 성별변인에 의하여 설명될뿐이며, 이 경우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더 낮은 득점경향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DIT指數에 있어서의 성별차이는 모든 연령계층에 걸쳐 별로 의의있게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Rest(1979b)에 의하면, 우리는 의의있는 성별차이가 나올 경우 다른 변인들, 즉 지능, 사회경제적 수준, 교육 등의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도덕발달에 관한 연구에서 提起되고 있는 성별변인에 대한 논란은 경험적 연구결과보다는 남녀차별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서 비롯되기 쉽다는 것이다(Rest, 1979b). 아무튼 歐美에서 이루어진 연구결과들에 의하면, 대체로 성별차이가 도덕발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이 지배적인 것 같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도덕판단의 性別效果를 검증한 연구가 발견되지 않으므로, 歐美에서 이루어진 연구결과들에 비추어 한국적 문화배경에서도 성별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앞에서 살펴 본 Kohlberg의 도덕판단단계와 관련하여 Rest의 DIT연구결과들을 토대로 다음의 假說을 설정하고 검증하게 될 것이다.

假說 1. 한국 학생들은 학년수준에 따라 P점수의 증가경향을 보일 것이며, 각 발달단계별 平均點數들은 道德發達의 전형적 발달추세를 반영할 것이다.

假說 2. DIT指數에 있어서 도시학생들은 시골학생들보다 높은 득점경향을 보일 것이다.

假說 3. 성별차이에 대한 歐美의 경험적 연구결과들에 비추어 볼 때, 한국 학생들도 DIT 指數에 측면에서 성별차이를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假說 4. Rest(1979b), Husted(1978), Ismail(1976) 등의 比較文化的 연구결과와 韓·美間의 社會·文化的 배경의 차이를 고려할 때, 한국 학생들은 미국 학생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DIT P점수를 보일 것이다.

方 法

被驗者. 본 연구에 동원된 피험자는 총 480명으로서, 도시(서울)와 시골(江原道 華川)의 국민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및 대학교 1~2학년 男女 학생 각 30명씩이었다. 서울지역의 대학생은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심리학개론과정의 수강생들이었으며, 시골지역의 대학생은 華川邑에 대학교가 없기 때문에 강원대학교의 심리학 수강생들을 택하였다. 대학생 피험자의 경우, 도시의 대학생은 서울에서 성장한 학생으로 한정하였으며, 시골의 대학생은 그 地方의 농촌출신자로 제한하였다. 도시와 시골, 학교와 학급, 피험자 등은 임의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이들이 全集을 代表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나. 그러나 이들이 도시와 시골을 어느 정도 반영하리라는 것은 능히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檢査道具. Rest(1979a)의 DIT는 1) Heinz와 약품(Heinz and drug), 2) 학생동성, 3) 탈옥수(Escaped prisoner), 4) 의사의 궁지(The doctor's dilemma), 5) Webster(注油所 주인) 및 6) 新聞의 6개 問題狀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제상황에는 12개씩의 道德判斷問項들이 주어져 있다. 피험자들이 할 일은 주어진 문제상황을 읽은 뒤 重要度를 나타내는 5點尺度에 따라 12개 도덕판단문항을 評定하는 것이다. 피험자들은 뒤이어 네 가지의 중요한 主題를 택하여 각 問項의 번호를 重要順으로 기입하여야 한다. Rest(1979a)의 6개 문제 중에서 2),5) 및 6)의 문제상황은 文化·社會的으로 한국의 實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삭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 쓰인 한국형 DIT는 1) Heinz와 약품(한국형에서는 "철수 아버지와 암치료약"), 2) 탈옥수("어느 탈옥수") 및 3) 의사의 궁지("어느 의사의 고민")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제상황과 이에 관련되는 12개 도덕판단문항들은 제 1 필자와 제 2 필자에 의하여 Rest(1979a)의 原文이 뜻하는 방향으로 의역·취합된 뒤 소수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試驗檢査에 붙여졌다. 추후면담결과, 이들은 검사의 내용과 요구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

Rest(1979a)의 DIT에 대한 檢査—再檢査信賴度係數는 6개 문제상황(完全型)의 경우 P點數가 .71~.82(4개 標集)였으며, 단계별 평균점수들에 대한 것은 .27~.78이었다. 縮小型 DIT(3개 문제상황)의 相應하는 신뢰도계수의 범위는 각각 .58~.77과 .32~.74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再檢査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韓國型 DIT에 대한 再檢査 信賴度係數는 산출할 수 없었다.

節次. 초·중·고 학생집단에 대한 DIT검사는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해한 해당 학급 담임교사에 의하여 실시되었으며, 대학생집단은 제 1 필자와 제 2 필자가 검사하였다. 主檢査에 들어가기에 앞서 일반 지시문을 천천히 읽어주고 理解度를 확인한 뒤 연습문제를 먼저 풀도록 하였다. 연습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해줌으로써 모든 피험자들이 완전히 이해하였음을 확인한 뒤 주검사에 들어갔다. 검사시간의 제한은 없었지만, 대체로 30분 안에 검사를 모두 마칠 수 있었다.

分析. 검사가 완료된 자료는 Rest(1979a)의 방법에 따라 검사책자별로 채점되었다. 地域(도시와 시골), 性別 및 학년수준(초·중·고 및 대학교)에 따르는 差異檢證은 電算프로그램에 의하여 三元變量分析에 붙여졌다. Rest(1976)의 연구보고에는 차이검증을 할 때 필요한 標準偏差가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韓·美 학생집단간의 비교는 表와 그림의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結 果

표 1은 地域別, 性別 및 學年水準別 P점수에

表 1. 變量分析結果(DIT P點數)

變 散 源	自乘和	自由度	平均自乘和	F	p
主効果	24,813.08	5	4,962.62	24.626	0.001
地域(A)	3,931.93	1	3,931.93	19.511	0.001
性別(B)	1,332.67	1	1,332.67	6.613	0.010
學年(C)	19,548.49	3	6,516.16	32.335	0.001
二要因 相互作用	2,555.78	7	365.11	1.812	0.083
A×B	62.64	1	62.64	0.311	0.577
A×C	1,565.38	3	521.79	2.589	0.052
B×C	927.76	3	309.25	1.535	0.205
三要因 相互作用(A×B×C)	263.14	3	87.71	0.435	0.728
誤 差	93,506.24	464	201.52		
合 計	121,138.24	479	252.89		

表 2. 要因別, 段階別 平均點數와 平均 P點數

요인 \ 단계 / 구분		2	3	4	P점수
地 域(A)	시골	4.1	22.4	30.3	30.7
	서울	3.8	19.6	29.7	36.4
性 別(B)	남	3.5	20.5	32.3	31.7
	여	4.5	21.6	27.4	34.8
學年水準(C)	초	6.2	25.3	30.3	24.7
	중	5.4	22.6	30.4	30.2
	고	2.9	19.8	29.8	37.2
	대	1.5	16.4	28.9	41.4

대한 變量分析結果를, 그리고 표 2는 이들 3개 요인에 따르는 발달단계별 평균점수들과 P점수들을 제시한 것이다. 표 1에 의하면, 3개 요인의 主效果는 각각 .01 이하의 확률수준에서 의의있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나아가 표 2의 평균 P점수들의 분포상태로 미루어 보아, 성별요인을 제외한 두 要因에 있어서는 각 下位集團別 變異의 방향이 각기 상응하는 가설을 지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학년수준에 관한 제 1가설과 지역에 관한 제 2가설은 의의있게 지지되었으나, 성별변인은 가설에 어긋나는 女學生 優勢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나아가 의의없는 것으로 나타난 二要因 및 三要因 相互作用效果로 미루어 보아, 主效果에 따르는 차이 경향은 상당히 일관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은 제2, 3 및 4단계의 점수들에 대한 변량분석결과 중에서 의의있는 效果만을 골라 確率水準의 형식으로 제시한 것이다. 제 2 단계의 주효과에 있어서는 성별변인과 학년변인이 의의있는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일체의 상호작용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의 제 2 단계에 대한 평균치들로 미루어 보아, 학년수준에 따르는 차이는 예상되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여학생 우세로 나타난 성별차이는 기대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에 의하면, 제 3 단계에서 나타난 의의있는 주효과는 지역과 학년수준에 관한 것이며, 三要因 相互作用만이 .05 이하의 확률수준에서 의의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에 제시된 제 3 단계의 평균점수분포에 의하면, 의의있는 두 가지 主效果(지역과 학년)는 예상에 부합하는 變異傾向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제 3

表 3. 意義있는 變量分析 結果(段階別 點數)

단계 \ 요인	지역(A)	성별(B)	교육(C)	A×B	A×C	B×C	A×B×C
2		.042	.001				
3	.007		.001				.027
4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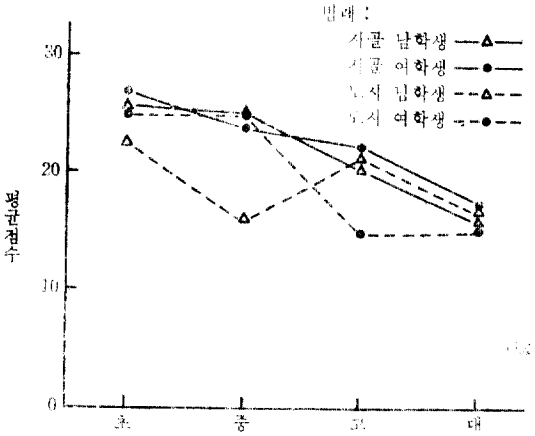

그림 1. 제 3 단계의 三要因 相互作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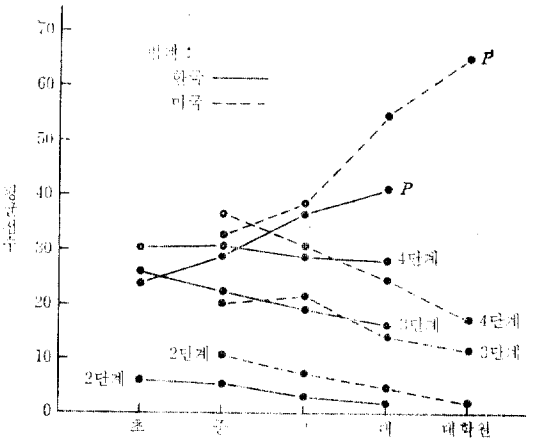

그림 2. 韓·美 표집의 학년별 DIT指數 분포

단계 평균점수는 학년수준에 따라 감소하고 있으며, 시골학생이 도시학생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득점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제 3 단계에 있어서의 三要因 相互作用效果는, 시골학생의 경우 남녀가 모두 학년수준에 따라 直線的 감소경향을 보이는데 반하여, 도시학생의 경우 남학생들은 중학교수준에서, 그리고 여학생들은 고등학교에서 평균점수가 급격히 내려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표 3에 따르면, 제 4 단계에서는 성별차이에 대한 主效果만이 의의있으며, 상호작용효과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때의 性別差異는 남학생 우세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볼 때, 지역, 학년 및 성별에 따르는 P점수에 관한 세 가지 假說에 대해서는 성별요인을 제외한 두 가지 가설만이 지지되었으며, 단계별 점수에 있어서는 제 2 단계의 성별과 학년, 제 3 단계의 지역과 학년, 그리고 제 4 단계의 성별 등이 의의있는 차이를 나타냈다. 相互作用效果는 제 3 단계의 三要因간에서만 나타났다. 따라서 제2, 3 및 4단계의 下位集團別 점수분포에 관한 한, 假說 1, 2 및 3이 단지 부분적으로만 지지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는 韓·美 학생집단에 대한 학년별 DIT 指數들의 분포상태를 對比시켜 제시한 것이다. 미국의 자료는 Rest(1976)의 연구결과에서 인용한 것으로서, 중학생에서 대학원생까지의 標集(n=40×4=160)에서 구한 것이고, 한국의 자료는 국민학생에서 대학생까지의 표집(n=120×4=480)을 대상으로 구한 것이다. 따라서 실제로 比較可能한 학년수준은 중학생, 고등학생 및 대학생들뿐이며, 한국의 국민학생집단과 미국의 대학원생집단은 각 比較集團 안에서의 발달의 계속성 여부를 살피기 위한 것이다. 原理的 道德性에 관한 P점수의 발달추세는 韓·美 두 집단이 상당히 대조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 즉, 중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의 발달경향은 兩者가 거의 비슷한 증가추세를 보이며, 특히 한국 학생들은 대체로 대학교수준까지 거의 直線的 증가현상을 보이고 있으나, 미국 학생들의 경우에는 대학교와 대학원에 이르러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등학교의 37.4에서 대학교의 54.9를 거쳐 대학원의 65.1).

한편 韓·美 집단의 제 2 단계에 대한 학년별 평균점수들은 5점 안팎의 한국 학생집단 低調현상(따라서 발달의 측면에서는 한국 학생들이 앞선다고 볼 수 있음)을 보이면서 거의 直線的 下降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제 3 단계의 평균점수들은 두 집단이 학년에 따라 거의 비슷한 점수수준과 기울기의 하강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제 4 단계의 평균점수들에 있어서는 두 집단이 고등학생집단을 기준으로 相互交叉關係를 보이고 있다. 즉, 한국 학생들은 중학교에서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거의 비슷한 수준의 평균점수(30.4〈中〉, 29.8〈高〉, 28.9〈大〉)를 보이고 있으며, 한편 미국 학생들은 중학생집단의 36.7에서 대학원생집단의 17.5까지 비교적 가파른 기울기의 하강경향을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韓·美 집단의 圖表的 비교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차이점은, 두 집단은 학년수준에 따라 P점수가 일관성있게 증가하지만, 미국 학생들은 대학교수준에서부터 급격히 증가함으로써 결국 한국 학생들을 앞선다는 것(한국 대학생표집=41.5, 미국 대학생표집=54.9), 제2단계의 학년별 평균점수에 있어서는 한국 학생들이 미국 학생들보다 더 낮은 점수(5점 안팎)를 보임으로써 약간 더 빠른 발달경향을 보인다는 것, 그리고 제4단계의 학년별 평균점수에 있어서는 한국 학생들이 거의 비슷한 점수 수준에 머무는데 반하여 미국 학생들은 학년에 따라 급격한 감소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따라서 韓·美간의 DIT指數 비교에 있어서는 제3단계를 제외한 모든 단계의 平均點數와 P점수가 발달경향의 차이를 보임으로써 假說 4를 부분적으로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표 4는 韓·美 학생집단의 학년별 평균 P점수들과 例外的 段階選好率들을 對比시켜 제시한 것이며, 한국의 국민학생들과 미국의 대학원생 표집의 指數들은 각각 해당 집단의 橫斷的 발달경향을 살피기 위하여 제시한 것이다. P점수의 발달경향과 결부된 韓·美 集團간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이미 그림 3에서 다룬 바 있다. 표 4에 의하면, 높은 選好率(混合型은 제외)들이 대체로 對角線을 중심으로 몰리고 있으며, 이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選好率들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학년수준에 따르는 발달경향을 반영한다 하겠다. 특히 비교가 가능한 한국과 미국의 중학생, 고등학생 및 대학생표집들의 제2,3 및 4단계에 대한 綜合選好率은 한국 학생들이 52.5%(中), 30.9%(高) 및 19.9%(大)이고, 미국 학생들이 67.5%(中), 67.0%(高) 및 27.5%(大)로서, 韓·美 학생들의 서로 다른 段階選好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나아가 같은 比較集團의 제5(A와 B) 및 제6단계에 대한 종합선호율(原理的 道德性의 단계들에 대한 選好率)은 한국 학생들이 25.0%(中), 53.3%(高) 및 62.5%(大)이고, 미국 학생들은 5.0%(中), 12.5%(高) 및 52.5%(大)로 나타남으로써 두 집단의 차이점을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다. 즉, 낮은 단계들에 대한 종합선호율에 있어서는 한국 학생들이 학년수준에 따라 점차적인 감소경향을 보이는 반면, 미국 학생들은 中·高校水準에서 비슷하게 높은 選好率(67%)을 나타내다가 대학교수준에서부터 갑자기 떨어지고 있다(27.5%). 또한 原理的 道德性에 대한 종합선호율에 있어서는 한국 학생들이 적어도 점진적 증가추세를 보이는 반면, 미국 학생들은 中·高校水準에서 아주 낮은 選好率을 보이다가 대학교수준에 이르러 급격히 올라가고 있다. 어느 選好段階로도 분류할 수 없는 混合型에 있어서는 한국과 미국의 학생들이 대체로 20% 안팎으로서, 집단간의 현저한 차이점은 발견되지 않는다.

종합적으로 볼 때, 두 집단의 段階選好型에 대한 비교에 있어서 한국 학생들은 학년수준에 따라 대체로 점진적 발달경향을 보이지만, 미국 학생들은 高校수준까지 停滯현상을 보이다가 대

表 4. 韓國과 美國 標集의 학년수준별 P점수와 段階 選好率

구 분	초	중		고		대		대학원
	韓	韓	美	韓	美	韓	美	美
P 점 수	25.0	30.2	32.7	37.4	37.4	41.5	54.9	65.1
제 2 단 계	31.6	22.5	32.5	9.2	15.0	0.8	5.0	2.5
제 3 단 계	20.8	18.3	7.5	11.7	22.5	3.3	2.5	10.0
제 4 단 계	11.7	11.7	20.5	10.0	15.0	5.8	7.5	2.5
(4.5 단 계)			(7.5)		(17.5)		(12.5)	(10.0)
제 5A 단 계	12.5	14.5	2.5	22.5	2.5	14.2	17.5	10.0
제 5B 단 계	4.2	5.0	2.5	17.5	2.5	25.0	17.5	15.0
제 6 단 계	4.2	5.8	0.0	13.3	7.5	23.3	17.5	22.5
混 合 型	15.0	22.5	27.5	15.8	17.5	17.6	20.0	22.5

학교 수준에 이르러 급격히 증가하며, 이와 같은 경향은 한국의 국민학생표집과 미국의 대학원생표집으로까지 연장시켜 보더라도 변하지 않는다. 이는 韓·美 학생집단의 시로 다른 도덕발달경향을 시사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論 議

한국학생 대상의 본 DIT연구결과에서는 原理的 道德判斷에 관한 주요指數인 P점수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지지되고 있는 도시·시골간 차이와 학년수준별 차이가 나타났으나, 性別變因에 있어서는 원래의 假說에 어긋나는 여학생 집단 우세의 결과가 확인되었다. 특히 발달경향에 있어서의 지역간 차이(시골 학생들은 중학교까지의 정체현상에서 고등학교에 이르러 급격히 증가하며, 도시학생들은 고등학교까지 급격히 증가하다가 대학교에 이르러 정체현상을 보임)는 橫斷的 硏究라는 본 연구의 제한성에도 불구하고 교육시설과 환경, 교육에 대한 학생과 부모의 태도, 고등학교 및 대학교進學率 등에서 나타나는 도시와 시골간의 차이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P점수에 비하여 信賴度가 낮은 경향을 보이는 제2,3 및 4단계에 대한 下位集團別 평균점수들은 일관성있게 나타나지 않았다. 즉, 功利的 相互交換에 관한 道德性을 측정하는 제 2 단계에 있어서는 여학생 優勢(발달의 측면에서는 低調)의 성별효과, 對人相互期待에의 부응에 관한 도덕성을 측정하는 제 3 단계에 있어서는 시골학생 우세(발달의 低調)의 지역효과와 학년효과 및 三要因 相互作用效果, 그리고 사회체제의 유지와 양심에 관한 도덕성을 측정하는 제 4 단계에 있어서는 남학생 우세의 성별효과 등이 확인되었으나, 이들에 대해서 분명하고도 완전하게 설명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울 것이다.

본 연구는 Kohlberg의 道德判斷에 관한 心理的 認知發達理論을 어느 정도 지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하겠다. 그러나 Kohlberg(1969) 자신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피험자의 약 50%만이 특정의 도덕발달단계로 분류될뿐, 나머지 피험자들은 어느 한 단계를 중심으로 正常分布를 이룬다는 주장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Fishikin, Keniston 및 MacKinnon(1973)의 연구에서도 單一道德發達段階로 분류되는 대학생 피험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다. 발달단계에 있어서의 개인별 變異현상은 본 연구에서도 각 피험자의 選好段階를 결정할 때 나타났으며(실제로 混合型의 피험자가 20%나 되었음), 이와 같은 個人差들이 낮은 발달단계들에 있어서의 일관성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데 기여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표 4의 對角線에 집중되는 높은 選好率들과 학년별 P점수의 점진적 증가추세로 미루어 보아, 본 연구결과는 廣義에 있어서의 Kohlberg발달단계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Rest(1979b)의 성별차이나 남녀편견에 대한 反論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결과에서는 P점수가 일관성있는 여학생 우세현상을 보였으며, 제 2 단계(여학생 우세)와 제 4 단계(남학생 우세)에서도 성별차이가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P점수에 있어서의 性別差異는 대학생 피험자에 대한 Schomberg(1978)의 연구결과 및 중학생 피험자에 대한 Rest 등(1974)의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여학생 우세의 방향으로 나타났다. Simpson(1974)은 도덕발달에 있어서 女性들의 固着可能性에 관하여 논의하면서, 文化的 條件形成으로 인하여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因習的 道德水準에 더 머물기 쉽다고 주장하였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이와 相反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Kohlberg(1969)와 Saltzsein(1976) 역시 役割受任이나 사회참여와 같은 過程要因들이 도덕발달의 개인차나 집단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며, Lickona(1976)는 社會的 與件과 내용이 중요한 영향요인이라고 주장한다. 도덕판단에 관한 Kohlberg類의 연구와는 다르지만, 신용성, 순종성, 타인의 권리존중 등에 관한 연구에서 女性들이 더 도덕적이라는 것으로 밝혀졌으며(Meyer와 Thompson, 1956; Terman과 Tyler, 1946; Krebs, 1969), Hoffman(1975)은 남성들에 비하여 여성들이 더 人道主義的인 도덕표준을 지니고 있다는 일반론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Burton(1976)은 正直性에 관한 연구결과들을 검토한 결과, 성별차이가 일관성

있게 나타나지 않을뿐더러 의의있는 차이를 보이는 연구결과들도 지능, 동기, 사회경제적 수준, 연령 등의 변인과 관련하여 심층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몇 가지 의의있는 性別差異들이 과연 한국적 문화배경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Holstein(1976)의 주장처럼 DIT의 問項들이 男女偏見을 반영하는지에 대해서는 제반요인들을 참작하여 다각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原理的 道德性에 관한 P점수와 對人相互關係의 도덕성에 관한 제3단계 점수에서 나타난 한국 학생집단의 지역간 차이와 韓·美 比較集團간의 P점수 및 選好段階率의 차이경향은 두 나라의 서로 다른 사회·문화적 환경의 영향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道德性의 實體는 주어진 文化類型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Benedict, 1934), 一元的 社會狀況은 多元的 社會狀況보다 權威指向的 도덕성을 더 조장한다는 것이다(Bronfenbrenner, 1970a, b). Giligan(1976)은 體面文化와 罪責文化는 각기 다른 도덕발달수준을 형성하며, 주어진 도덕수준 안에서는 상당한 個人差가 발견된다고 주장한다. Garbarino와 Bronfenbrenner(1976)는 제Ⅲ수준의 도덕성은 多元主義를 필요조건으로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Shirer(1960)는 그와 같은 전형적인 예로서 나치독일의 사회전반에 걸친 도덕성 붕괴의 경우를 들고 있다. 鄭良謨(1980)에 의하면, "모든 道德判斷이 이데올로기에 의하여 완전히 결정된 사회에서는 道德判斷이 달라질 수 없고 따라서 道德發達이란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의 도시와 시골간 및 韓·美 학생집단간의 差異는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결과라 하겠다. 여기서 주목되는 현상은 대체로 韓·美 학생들이 고등학교까지는 거의 비슷한 수준의 P점수에 머물다가 미국 학생들만이 대학교에서부터 급격한 증가추세를 나타냄으로써 한국 학생들을 훨씬 앞선다는 것이다(이와 같은 발달추세의 차이는 原理的 道德段階들에 대한 종합選好率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는 아마도 國家安保를 第一義로 삼지 않을 수 없는 한국의 정치·사회적 實情과 多元的 民主主義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미국의 정치·사회적 現實(특히 미국 大學敎育의 폭 넓은 自律性)간의 차이에 연유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結 論

본 연구에서는 Rest(1979a)의 DIT를 소개하고, 아울러 DIT指數에서 나타나는 한국 학생들의 지역별, 학년별 및 男女別 差異와 韓·美 比較集團간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 보았다. 넓은 個人差의 범위 안에서 한국 학생들은 Kohlberg類의 일관적인 도덕발달단계를 반영하였으며, 문화·사회적 영향을 반영을한다고 볼 수 있는 DIT指數에 있어서의 發達傾向의 차이점이 한국의 도시·시골간과 韓·美 비교집단간에서 나타났다. DIT指數上으로 나타난 한국 학생들의 性別差異에 관한 한, 앞으로 다각적인 연구가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鄭良謨. **心理學通論**(修正增補版), 1980.

Aronfreed, J. Moral development from the standpoint of a general psychological theory. In T. Leckona (Ed.), *Moral development and behavior*.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1976.

Benedict, R. *Patterns of culture*. New York: New American Library, 1958. (First published in 1934).

Berkowitz, L. *Development of motives in a child*. New York: Basic Books, 1964.

Bronfenbrenner, U. Reaction to social pressure from adults versus peers among Soviet day-school and boarding-school pubils in the perspective of an American samp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70, *15*, 179-189. (a).

Bronfenbrenner, U. *Two worlds of childhood*.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1970.

(b).

Colby, A. and Kohlberg, L. The relation between the development of formal operations and moral judgement. In D. Bush and S. Feldman (Eds.), *Cognitive development and social development: Relationships and implications.* New York: Lawrence Earlbaum Associates, 1977.

Eysenck, H.J. The biology of morality. In T. Lickona (Ed.), *Moral development and behavior.*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76.

Fishkin, J., Keniston, K., & MacKinnon, C. Moral reasoning and political ideology. *Journal of Per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73, *27*, 109-119.

Garbarino, J. and Bronfenbrenner, U. The socialization of moral judgement and behavior in cross-cultural perspective. In T. Lickona (Ed.), *Moral development and behavior.*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76.

Giligan, J. Beyond morality: Psychoanalytic reflections on shame, guilt, and love. In T. Lickona (Ed.), *Moral development and behavior.*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76.

Hoffman, M.L. Sex differences in moral internalization and valu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75, *32*, 720-729.

Holstein, C.B. Irreversible, stepwise sequence in the development of moral judgement: A longitudinal study of males and females. *Child Development*, 1976, *47*, 51-61.

Husted, S.D. Using a stage profile to assess judgement of moral issues: Examining the development of moral reasoning in pediatric faculty, house officers, and medical students.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Connecticut Health Center, Farmington, 1978.

Ismail, M.A. *A cross-cultural study of moral judgements: The relationships between American and Saudi Arabian university students on the Defining Issues Tes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Oklahoma State University, 1976.

Kohlberg, L. Stage and sequence: The cognitive-developmental approach to socialization. In D. Goslin (Ed.), *Handbook of socialization theory and research.* Chicago: Rand McNally, 1969.

Kohlberg, L. The concepts of developmental psychology as the central guide to education: Example from cognitive, moral and psychological education. In M. Reynolds (Ed.), *Psychology and process of schooling in the next decade: Alternative conceptions.* Minneapolis: Department of Audio-visual Extension (University of Minnesota), 1971.

Kohlberg, L. Moral Stages and moralization: The cognitive developmental approach. In T. Lickona (Ed.), *Moral development and behavior.*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1976.

Kohlberg, L., Colby A., Gibs, J., & Speicher-Dubin, B. *Standard form scoring manual.* Cambridge: Center for Moral Education, Harvard Univsersity, 1978.

Krebs, R.L. Teacher perceptions of children's moral behavior. *Psychology in the Schools*, 1969, *6*, 394-395.

Meyer, W. and Thompson, G. The differences in the distribution of teacher aproval and disaproval among sixth grade childre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965, *47*, 385-396.

Mischel, W. and Mischel, H.N. A cognitive social-learning approach to morality and self-regulation. In T. Lickona (Ed.), *Moral development and behavior.*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76.

Piaget, J. *The moral judgement of the child.* (M. Gabian, Trans.). New York: Free Press, 1965.

Rest, J.R. New approaches in the assessment of moral judgement. In T. Lickona (Ed.), *Moral development and behavior.*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76.

Rest, J.R. *Revised manual for the Defining Issues Test: An objective test of moral judgment development.* Minneapolis: Minnesota Moral Research Projects, 1979. (a).

Rest, J.R. *Development in judging moral issues.*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79. (b).

Rest, J.R., Cooper, D., Coder, R., Masanz, J., & Anderson, D. Judging the important issues in moral dilemmas. *Developmental Psychology*, 1974, *10*, 479-501.

Saltzsein, H.D. Social influence and moral development: A perspective on the role of parents and peers. In T. Lickona (Ed.), *Moral development and behavior.*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76.

Schomberg, S.F. *Moral judgment development and its association with freshman year experienc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1978.

Shirer, W. *The rise and fall of the third reich.* 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60.

Simpson, E.L. Moral development research: A case of scientific cultural bias. *Human Development*, 1974, *17*, 81-106.

Terman, L.M. and Tyler, L. Psychological sex differences. In L. Carmichael (Ed.), *Manual of child psychology.* New York: Wiley, 1946.

韓國心理學會誌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1982, Vol. 3, No. 3, 159-171

A Study on Student's Moral Judgments

Park, Jong-Young and Lee, Jong-Hyun
Th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Air Force Academy

The aim of this study is to compare students' moral development stages across different subsamples of educational levels, regions and sexes using the Rest's (1979) Defining Issues Test (DIT), and to assess possible differences in the developmental trends of Korean and American student groups. A total of 480 subjects from Seoul and Hwachon area, composed of 30 male and female sixth, eighth and eleventh graders as well as collegians, was employed in the present study. Rest's (1976) results were used as the American data for the comparison purposes. The regional and educational effects in accordance with the hypotheses were reflected on the P scores which measure an important aspect of principled morality. However the effect of sex differences was significantly in favor of females, which was in contradiction to the hypothesis. The second, third and fourth stage scores which were at relatively low reliability levels showed inconsistent differences among educational levels, regions, and sexes. It was revealed that the developmental patterns of Korean and American students with respect to the P scores and the rates of exceptionally preferred stages are quite different: the Korean groups show a gradually increasing trend according to educational levels, whereas the American counterparts show abrupt increases from the college level. The Kohlbergian moral judgment stages in a broad sense were confirmed by the present investigation of Korean samples. It is interpreted that the differences in P scores, some of the stage scores, and the preferred stage rates between the rural and urban Korean student groups, and between Korean and American groups are reflections of different socio-cultural backgrounds.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the future DIT research in the field of sex differences shoud pay due attention to all of the possible effects of relevant factors such as IQ, SES, age, region, education, religion, etc.